

# 열린공간 문화예술마을로 거듭

서노송예술촌, 서점 '물결서사' 현판식·워크숍 개최  
물왕벌 예술가들의 추천도서 7권 발표·북토크 진행

성매매집결지에서 문화예술마을로 거듭나고 있는 전주시 서노송동 선미촌에서 시민들을 위한 첫 번째 상설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전주시는 지난 25일 선미촌 한복관에 들어선 예술서점 전문서점 '물결서사(書肆)'에서 현판식과 함께 '생존'을 주제로 한 첫 번째 물결서사 워크숍을 진행했다. '물결서사'는 전주지역에서 활동중인 청년예술가 7명(Artist Lab 물왕벌)이 책방을 상시 운영하고, △주민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세미나 △창작활동을 통해 완성된 작품 전시 등의 예술 활동을 펼치는 것이 핵심으로, 서노송예술촌으로 변화중인 선미촌에서 상설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지난 반세기 이상 성매매집결지였던 이곳에 문화예술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 닫혀있던 공간이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결서사에 참여하는 청년예술가는 △고형숙(한국화가) △김성혁(성악가) △민경박(영상 크리에이터) △서완호(서양화가) △임주아(시인) △장근범(사진가) △최은우(애니메이션 크리에이터) 등으로, 이날 현판식에서는 김성혁 성악가의 축하공연에 이어 'Artist Lab 물왕벌' 임주아 대표(시인)가 물결서사 프로젝트 추진경과와 향후계획, 추천도서를 발표했다. 물결서사 1~2월 주제는 '생존'으로, 물왕벌 예술가들은 예술가·자영업자·크레이

터·책방·서점주인 등이 질문에 답을 찾는 △사진집△시집△소설△인터뷰집 등의 도서를 추천했다.

현판식에 이어 이어 '내가 생각하는 생존이란?'을 주제로 물왕벌 예술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물결서사에 참여중인 청년예술가들은 지난달부터 물결서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주 6일간 꾸준히 서점을 운영해 온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김지연 사진가가 초청해 사진집 '자영업자'에 대한 북토크 형식의 워크숍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김지연 사진가의 자영업자 영상을 감상하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 사진집 '자영업자'는 김지연 사진가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전주·서울·광주에서 생활하는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사진과 인터뷰로 담아낸 책으로, 진솔한 삶과 생존 분투기가 담겨 있다. 이날 행사는 장근범 사진가가 물결서사에 도서를 기증해 준 주민들에게 증명사진을 촬영해주는 '생존 스튜디오'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이와 관련, 지난 2015년 8월 첫 발을 내딛은 선미촌 문화재생산업은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사업인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해 예술품 등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센터 유치 △지역거점별 소통 협력사업인 사회혁신 리빙 랩 공간조성 등 국가지원을 이끌어내면서 올해 시행 5년째를 맞

이하면서 그 변화의 폭과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의 메인 사업인 권삼득로 여행길 및 골목길 조성사업은 오는 2월말 공사에 착수하게 되며, 문화예술복합공간도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에 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주 업사이클센터도 오는 9월이면 문을 열게 된다.

여기에, 시는 서노송예술촌을 여성인권과 문화재생을 위한 시민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선미촌 매입공간에 소통협력공간인 서노송예술촌리빙랩 등을 운영하고, 선미촌 일원에서 추진중인 △중앙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선미촌 영상기록물 제작 등의 사업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번 워크숍을 기획한 임주아 아티스트 물왕벌 대표는 "동네서점은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지역문화의 새로운 결을 만드는 대안문화공간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물결서사'는 다양한 청년예술가들이 운영하는 만큼 더 폭넓고 신선한 콘텐츠로 문화예술 워크숍을 이끌고, 주민들과 시민들이 일부터 찾아오는 서점이자 동네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일 전주시 사회경제지원단장은 "선미촌 매입공간 4호점인 서노송예술촌 물결서사 프로젝트를 통해 민·관·학이 협력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리모델링을 통해 서점공간과 공유책방을 분리했다"면서 "앞으로도 전주형 도시재생 사업에 예술적 감각을 가미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의 여섯 번째 주제인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식생활' 편이 발간됐다.

## 고대부터 현대까지 음식문화의 모든 것

국립민속박물관, 한국 의식주생활사전 '식생활' 발간

국립민속박물관이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의 여섯 번째 주제인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식생활' 편을 발간했다. 한국 식생활을 종합적으로 해설한 책이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왕실에서부터 서민들의 음식문화까지를 포괄했다. 왕실 음식인 신선로와 구절판에서부터 돈가스, 치킨, 김치냉장고까지 변화한 생활 방식에 따라 등장한 음식문화를 수록해 해설했다. 음식과 도구의 유래와 역사, 조리법, 관련 풍습, 현대적 의미를 도판과 함께 구성해 이해도를 높였다.

주막, 다방, 방앗간, 양조장, 요릿집, 시장 등 시대적 생활상을 품고 있는 공간도 수록했다.

사전 표제어는 음식, 재료, 도구, 자료, 용어로 범주를 나눠 체계적·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해설했다. 통과례와 관련한 첫국밥, 백일상, 풍상, 회갑상 등 표제어를 수록했다. 겸상, 새참, 상

물림, 급식 등 한국 생활문화 관련 항목을 해설했다. 음식 관련 개념어인 맛, 식사예절, 보릿고개, 구황작물도 수록했다. 수완갈비, 안동찜닭, 춘천닭갈비, 아바이순대, 포천막걸리, 전주비빔밥 등 지역 음식이자 이름 그대로 대표성을 가진 향토음식을 담아 음식의 탄생과 역사적 전개, 대중적 수용과 탈락 등 현상도 해설했다. 음식디미방, 반찬등숙, 조선요리법, 규합총서 등 식생활 관련 문헌도 수록했다.

사전 내용은 웹사이트(<http://folkency.nf.m.go.kr>)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안드로이드, IOS용)은 사전의 홈페이지와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정부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http://www.data.go.kr))에서도 사전 콘텐츠를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뉴시스

## 오늘 전북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스타트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은 2019 전라북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3일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재단은 지역에 대한 도민의 수요와 요구, 지역 내 환경과 특성을 고려, 원활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지원하고자 오늘부터 30일까지 전라북도 진안, 정읍, 전주에서 차례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는 14개 시·군을 동부·남부·서부 3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한다.

오늘은 동부권의 진안문화의집, 29일은 남부권의 정읍신문화예술회관, 30일은 서부권의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일반 성인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아동 및 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요문화학교 지역연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본 사업설명회에는 예술단체와 예술가 및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사업의 지원 절차 및 선정기준을 안내하고 지원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된다.

모집공고는 1월 30일부터 2월 31일까지 15일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문화예술교육에 관심 있는 도내 문화예술 유관 기관 및 단체와 시설은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ct.or.kr](http://www.jct.or.kr))와 문화예술교육팀 전화(063-230-7451~2)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 지휘자 정치용 & 코리안 심포니, 첫 음반 발매

지휘자 정치용(62) 예술감독과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녹음한 첫 음반 '브람스 교향곡 1번, 최성환 아리랑 환상곡'이 데카 레이블을 통해 발매됐다.

1876년 11월4일 처음 연주된 브람스 교향곡

1번은 반세기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심포니로 통한다. 빈의 비평가 에두아르트 한슬리크는 '심포니 문화의 획을 긋는 최고의 작품 중 하나'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북한 작곡가 최성환의 아리랑 환상곡은 한

반도 거주민이 겪은 집단적 희노애락을 서술했다. 최 작곡가는 2008년 로린 마젤 & 뉴욕 필하모니 평양공연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대중적 지명도를 얻었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지난 2017년 발매한 음반 '브루크너 9개의 교향곡'이 그 해 미국에서 '올해의 브루크너 음반상'을 받는 등 실력을 입증해왔다.

/뉴시스

## 헤민스님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베스트셀러 8주째 1위

헤민스님의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이 8주 연속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차트 1위를 달렸다.

지난 25일 교보문고에 따르면 16~22일 차트에서 김난도 교수(소비자학)가 이끄는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 소비트렌드분석센터의 '트렌드 코리아 2019'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2위를 차지했다. 기욤 뮈소의 '아가씨와 밤'이 전 주보다 한 계단 올라 3위에 올랐다.

조던 B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 나태주의 '꽃을 보듯 너를 본다', 앤디 그리피스의 '104층 나무 집' 등 최상위권 인기 도서 순위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뉴시스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